



인사말

世界家禽學會 제16次 會議參加 報告를 兼하여

李 在 根

(世界家禽學會 韓國支部 會長)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세계가금 학회 한국지부 회원 여러분의 영위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영광이 같이 하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부의 정기총회를 맞아 많은 회원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이 총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과거 1년간의 우리 양계업계를 회고하던 때, 採卵業界나 브로일러業界나 모두 비교적 순탄한 경기가 지속되면서, 增大추세에 있는 鷄卵肉의 수요에 잘 대처해 왔다고 보겠으며, 이는 국민에 대한 고급식품의 생산공급이란 큰 임무를 잘 수행한 것으로서, 크게 慶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닭이 본래 안고 있는 높고, 빠른 생산성으로 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양계업은 항상 생산과잉과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경영의 불안은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의 旗幟 밑에서 卵肉의 낮은 수준의 가격 유지

만을 기대하는 시책하에서는, 우리 양계인들 모두는 크게 걱정하여, 大勝的인 견지에서 서로 지혜를 다하여 양계업 전체의 안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과 그를 향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가금 會議의 參加報告와 아울러 그 所見의 一端을 말씀드리겠읍니다.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가금회의에는 본인과 오봉국 부회장, 박근식 수석이사 외에 업계에서 축산 경영지의 장용식 선생을 비롯한 종계업 4인, 동물약품업 3인, 사료업 1인, 양계기구업 1인 등 모두 13명이 참석했읍니다. 이 획기적인 大量의 대표단 파견에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韓國飼料協會, 大韓養鷄協會, 美飼料穀物協會, 韓一飼料, 韓協家禽育種農場, 千戶孵化場, 신기농장 및

회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일행은 리오데자네이로의 세계가금회의 참가에 앞서 미국에 들러 미국의 사료곡물생산 농가 및 유동의 현황, 종계 및 부화업, 닭 계약생산의 실태, 사료제조업, 採卵 및 브로일러 양계장, 대학의 가금학과, 수의학과 및 연구소, 노계 처리 공장, 브로일러 처리장, 破卵 및 卵加工場 등을 시찰하였기, 아울러 미국 시찰의 소견도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들 보고에 있어서 구체적 사항은 별항에서 오봉국 부회장, 박근식 수석이사에서 상세히 언급하겠기에 諒察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시찰 소견

(1) 옥수수, 수수, 콩 등 사료용 곡물

재배에 임하는 미국 농민들의 개척정신에 뿌리박힌 그 위대성엔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800에이커(약 100만평)의 농사를 노부모를 모신 부부가 나이 어린 세 딸과 더불어 가족 노동력으로 경영하고 있었는데, 트랙터 등 기계의 운전은 부인이 전담하고 있다. 아무리 기계농업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기질로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 농민들은 생산과잉으로 인하여 풍년기근에 고심하고 있다. 미정부의 15% 경작중지 권장에 따라 불경작의沃土들이 많이 눈에 뜨인다. 소련, 중공을 포함한 전세계에 대한 穀物공급국인 미국엔 아직도 곡물생산의 여지가 풍부함을 목격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수입국의 처지로서 우선 안심도 되지만, 미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되겠다고 느껴진다.

(2) 미국민들은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기 임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남의 일에 관여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다. 미국의 광대

한 국토와 사회에는 작은 한구석도 소홀하거나 버려진 곳이 없다. 세계 제일의 부국이지만 노폐물까지도 고압처리에 의하여 알뜰히 다양하게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3) 미국 각 분야의 개발과 발전은 미래 지향적인 연구가 그 고조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우주여행 시대의 장래에 대비하여 디즈니랜드에 우주선을 설치하여 범국민적인 지식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가금질병 연구소에서는 태양열을 이용한 육추의 연구에 열중하고 있으며, 또 현재 작물灌溉에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고갈(40년후로 예견)에 대비하여 미시시피河水의 이용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브로일러 처리과정에 닭의 두 다리를 人力으로 기계에 거는 작업을 자동화하려는 집념도 곧 실현되리라고 한다.

(4) 미국의 채란계의 65%, 브로일러생산의 95%는 사료회사, 부화업자, 또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계약생산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과 양계 농가와의 利害의 일치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그 결과는 미국의 卵肉需給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계약생산의 체계는 양계의 기계화 및 생산기술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5) 미국의 양계인들은 계란, 계육의 소비확대와 유통개선에 최대의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食卵의 품질검사, 洗卵, 液卵, 粉卵 및 혼합식품의 제조, 브로일러의 部分肉처리, 용도별 처리, 켄터키치킨 등을 따듯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의식한 최대의 연구와 봉사를 하고 있다.

(6) 브로일러의 꾸준사육에 있어서 年5회전씩 계속하고 있지만 질병적 요인에 의한 고민같은 것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는 年6회전을 계획하고 있어서 미국은 양계의 천국이라 느껴진다. 미국에서도 1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같은 고민이 있었으

니, 他山之石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기사 내에는 어느 곳이나 대형 선풍기가 수없이 장치되어 있어서 강풍을 이루고 있음은 특기할 일이다.

(7) 採卵鷄에서 우리나라도 無窓鷄舍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시설의 효율적이용과 노동생산성의 제고 능이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한 과제이기에, 단위면적 수용수수의 증가가 요청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평당 80수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無窓제사이다. 카니발리즘(조아먹기)을 예방하고 높은 점등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이다.

(2) 펠리트사료의 이용을 환경위생의 견지에서 시급히 검토하여야 하겠다.

2. 세계가금회의 참가 소견

9월 17일 회의본부에 등록한 한국본부 회원은 본인 외 11名이며, 회의의 개요 및 參觀所見은 다음과 같다.

(1) 가금會議 日程別 行事

9월 18일(月)

개회식, 생산 및 판매경제 특별회의 각 분과별 연구발표(박람회)

9월 19일(火)

생리특별회의 및 심포지엄, 영양특별회의 및 同 심포지엄, 각 분과별 연구발표 (박람회)

17:00~19:00 理事會

9월 20일(수)

유전특별회의 및 同 심포지엄, 생산물가공 특별회의 및 同 심포지엄, 각 분과별 연구발표

9월 21일(木)

미생물특별회의 및 同 심포지엄, 관리특별회의 및 同 심포지엄, 각 분과별 연구발표(박람회)

폐회식

(2) 학술연구 발표

7개 분과로 나뉘어져 특별회의 주제 발표

각 1人, 심포지엄 각 2~3인 분과별 학술발표 총수 260여건이었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학술발표분류: 7개분과(경제, 생리, 영양 유전, 가공위생, 관리)

분과별 발표건수: 경제 16, 생리 39, 영양 89, 유전 33, 가공 16, 위생 40, 관리 49
계 282(특별회의 및 심포지엄 포함)

학술발표 참가국수: 37개국

국가별 발표건수: 미국 62, 소련 38, 서독 26, 브라질 25, 볼 13, 홀랜드 12, 일본 10, 스페인, 이태리 각 8
英, 이스라엘, 아르헨틴, 캐나다 각 6
호주, 동독, 헝가리, 인도 각 5
南阿, 벨기에, 체코 각 4
칠레, 멕시코 각 3
瑞西, 瑞典, 노르웨이 각 2
比, polonia, 이라크, 유고, 나이지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에지프트, Dinamarca
우루과이, 도미니카, 이란 각 1

학술발표의 구체적인 목표는 본 책자의 末尾에 첨부코져하니 참조하여 주기 바라며 우선 위의 개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회의가 강대 미·소 양국을 위시한 범세계적인 대규모의 가금에 관한 학술 회의임을 알 수 있으며, 各分科別 主題講演, 심포지엄, 또 많은 학술발표와 토론에 이어지는 대학술 향연임을 인지할 수 있다.

이 방대한 학술회의의 내용 전체를 窺知할 도리는 없지만 부분적인 參觀所見만으로도 분야별로 기초, 응용을 망라하고, 특히 현실적인 과제들에 집중하여 연구에 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별 발표수는 미국이 62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련은 38건으로서 경제와 가공분야는 하나도 없었지만 생리분야, 그중에서도 인공수정분야가 50%나 차지하고 있음은 특히 주목되었다. 또 주최국인 브라질이 25건이나 학술발표

에 참가하고 있음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으며, 리비아, 우르파이, 도미니카 등 많은 저개발국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나라들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3) 가금박람회

가금박람회는 서로 인접한 3개소에서 개최되었는데, 헝가리 등 공산권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참가하였으며, 특히 주최국인 브라질은 학술발표에서도 양적으로 제3위권을 보였는데, 박람회에도 産卵케이지의 자동화장치, 부란기, 평사용 급수, 평사기, 브로일러 처리가공기계등 다수의 상품을 출품하여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볼 때, 이때까지의 우리들의 井底와 的自尊自讚이 부끄럽고 또 한탄스럽기만 하였다. 출품된 상품의 종류를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종계, 부란기, 洗卵, 選卵機, 産卵케이지 자동장치(給水, 飼料, 集卵), 사료제조 자동장치, 평면계사용 사료기 및 급수기, 판리기구(환기, 습도, 조절 등) 동물약품, 위생기기, 卵肉처리가공기계 등.

우리들의 현실로 보아 이러한 기계들을 당장에 제조한다거나, 설치 이용한다거나 너무 조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들의 처지로서는 우선 부분적인 채택 改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산란케이지용 워터킵給水장치라든가 平舍用 自動給飼器 및 給水器 등은 즉시 채택 보급되었으면 한다.

다양한 器械나 種鷄, 약품 등을 개발하여 출품한 이들의 배경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결과가 一朝一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투자와 노력이 기울여졌다는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서 우리는 냉철한 반성과 분발이 있어야 되겠다.

(4) 세계가금학회 이사회의

이사회는 9월 19일 하오 5시에 개최되

었는데, 우리나라에선 본인과 오봉국 부회장 및 박근식수석회장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새로 선출된 임원의 소속國는 다음과 같다.

회 장: 브라질(1명)

부회장: 미, 영, 瑞西, 스페인, 소련(5명)

Secretary: 英(1명)

또 이 자리에서 다음 번 제17차 회의는 폴란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개최 희망국: 폴란드 및 포르투갈)

이 자리에서는 또 前任 Secretary로 많은 공적을 쌓은 Dr. Coles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기념품 증정과 치사가 있었는데, 우리 韓國支部에서도 미리 마련해간 기념패를 증정하였다. 소련, 체코 등 공산권 회원국에서도 아주 다양한 정경을 보여 주었으며, 회원 분위기는 시종 매우 우호적이었음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끝으로 금번의 미국시찰, 세계가금학회 제16차 회의 참가소감 및 우리나라 양계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간추려 볼까 한다.

1. 대학에 가금학과를 설치하여 양계에 관한 分化的, 集約的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될 단계에 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현실과 제16차 세계가금회의 학술발표를 감안할 때, 양계 전공인의 양성과 양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2. 농수산부 등 시책 당국에 양계에 관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低物價偏向的 시책자세를 버리고, 양계생산의 장기적 안정기반의 조성 and 소비확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하루 빨리 시책전환을 해야 되겠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계 전담기구의 설치와 행정적연구 및 노력이 요청된다.

3. 세계속의 한국양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야 되겠다.

학계적 측면에서나 양계생산업, 부화업, 사료제조업, 동물약품업, 機具製作業 등 學界의 側面에서나를 막론하고, 우리 한국의 양계는 세계적 수준으로 볼 때 너무나 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한국양계가 세계수준에 가까워져 있다고 착각했고, 또 그렇게 외국인 들에게도 인식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에 세계가금회의에 가 보니 우리의 양계는 너무나 초라했다. 학술발표에서 그러했고, 양계 박람회에서도 그러했다. 또 미국의 양계업은 질병적 장애요인이 없고, 계약생산체제에 의하여 대축산 기업들과 양계생산업자는 혼연일체를 이룬 가운데 공생공존의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다.

학계나 업계를 막론하고 우리들은 조용한 자성과 새로운 설계가 요구된다고 느껴진다.

4.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의 성격의 재정립

우리 한국지부도 세계가금학회본부의 성격에 따라야 하겠다. 즉 가금에 관한 7개 분과에 적응할 학술연구를 그 지상의 목표로 해야겠다. 그리고 제17차 대회에는 많은 분들이 학술발표에 참가하도록 해야겠다.

업계회원 여러분들은 이의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업계회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학협동의 체제는 우리 한국지부의 한 운영기구로 설치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금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지부에서는 이번 제16차 가금회의에 학술발표 회원을 파견하기 위하여 34

명에 대하여 참가여비를 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財源은 양계업계로부터 지원되었다.

5. 양계 시찰단의 파견

양계의 계약생산, 협동조직 등 경영에 관한 연구및 시찰, 관리기구의 기계화, 卵肉의 처리가공, 소비유통, 환경위생 등에 관한 전문 분야별 시찰단을 파견하여 선진국의 시찰을 할 필요가 있다.

6. 양계 기계화의 준비는 이제부터 이루어져 나가야 되겠다

우리 나라도 노동력의 급격한 불황 현상으로 말미암아 양계 각 부문의 기계화 또는 省力化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일시적인 완전자동화(鷄舍)보다는 部分的 자동화를 하면서 서서히 완전 자동화를 지향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新築鷄舍의 규격이나 구조에 대한 시급한 연구와 지도가 요청된다. 多首數 수용을 위해서는 無窓鷄舍에 대한 檢討가 필요하다.

7. 소비확대 및 유통개선

생산과 소비를 운영할 수 있는 협동 또는 계약생산 체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중간 마아진을 省略하여 生産者, 消費者 모두를 보호해야겠다.

그리고 洗卵, 위생적인 포장, 部分肉生産 등 消費者가 안심하고 또 값싸고, 맛있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적극적으로 연구 되어야 하겠다